NAM JUNE PAIK ART CENTER

2017 하반기

교사용 지도서

백남준전《비상한 현상, 백남준》
2017.07.04. ~ 2018.02.04.

기획전《우리의 밝은 미래 - 사이버네틱 환상》
2017.07.20. ~ 2017.11.05

CONTENTS

02 I.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03 II. 단체 관람 안내

04 III. 교육 프로그램 안내

10 IV. 백남준전 개요 및 주요 작품 소개

18 V. 기획전시 개요 및 주요 작품 소개

※ 본 교재는 2017년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관람 및 감상지도를 위해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책자로 단체 관람에 대한 안내, 백남준과 전시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 연계된 간단한 설명 등이 담겨있습니다. 전시실에서 배포되고 있는 리플렛과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현상, 백남준》



《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

I.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

2001년 작가 백남준과 경기도는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I. 단체 관람 안내

1. 단체 자유 관람 예약 및 주의 사항

- 단체(20인 이상)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www.njpartcenter.kr)
-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시간당 최대 자유관람 인원은 100명입니다.
-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단체관람 페이지에서 예약 버튼을 클릭하셔서 관람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단체는 자유관람만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인솔자의 비율을 5:1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 시 안전관련 서약서를 확인하시고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2. 단체 도슨트 투어 예약 및 주의 사항

- 단체(20인 이상)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www.njpartcenter.kr)
-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시간당 최대 도슨트 투어 인원은 60명입니다.
- 단체 전시해설은 자유관람과 별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성인 2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일 총 4회(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3시)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단체관람 페이지에서 예약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시해설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사항

- 관람 전, 인솔자의 관람 예절 등에 대한 사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 시 인솔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A3 이상 사이즈의 가방류는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에 맡기셔야 합니다.

4. 관람요금

- 무료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 특별전은 관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6. 기타 사용 가능 시설 및 편의 시설

- 백남준 라이브러리(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 카페테리아 및 아트샵

관람 문의 : 031-201-8571~2 (reservation@njpartcenter.kr)

III. 교육 프로그램 안내

2017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 및 NJP 창작소 안내

프로그램명		세부대상	일시	내용	장소	접수	참가비
학생 단체 프로 그램	사물과의 대화	초등 4-6학년 30명 이하 단체	09.12-11.03 (화-금)	기획전《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을 관람하고, 나와 다른 존재와의 소통방식을 상상해보기	교육실 전시실	이메일 전화	1인당 3,000원
	피드백 : 우리의 밝은 미래 -사이버네틱 환상	중·고등학생 30명 이하 단체		기획전《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을 감상한 후, 기계-인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기	세미나실 전시실	이메일 전화	1인당 3,000원
	피드백: 비상한 현상, 백남준	중·고등학생 15명 이하 단체	09.01-11.30 (화-금)	백남준의 주요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를 통한 활동으로 백남준의 예술세계 이해하기	교육실 전시실	이메일 전화	1인당 3,000원
	바스락, 들리는 극장	장애 학생 15명 이하 단체		백남준의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작품을 감상 후 소리에 집중해보고,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동화극에 소리 입혀보기	교육실 전시실	이메일 전화	무료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중학생 30명 이하 단체		예술과 예술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상상하고 공유하기	교육실 전시실	이메일 전화	무료
NJP 창작소	예술×토크	고등학생 50명	11.17-12.22 (매주 금)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등 예술 관련 전문가와 만나는 직업 탐색 릴레이 특강	세미나실	이메일	무료
	청소년 창작워크숍 <그라운드 맵>	고등학생 (개별)	09.02-9.17 (매주 토,일)	청소년들이 작가와 함께 리서치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가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하기(6회차)	교육실 전시실	이메일	무료
	도전! NJP 도슨트	고등학생 (개별)	10.14-11.04 (매주 토,일)	청소년의 감성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미술관 도슨트 경험하기(7회차)	교육실 전시실	이메일	무료
	말을 그리는 법	초등학생 가족4팀 (개별)	11.11-12.16 (매주 토)	미술관에 있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찾아보고 우리 가족만의 픽토그램으로 바꿔보기	교육실 실내 및 야외	온라인 접수	가족당 5,000원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백남준아트센터는 학급 단위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감상을 통해 백남준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의 성장과 예술적 경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초등학생 단체 대상 | **사물과의 대화**

기획전 연계 프로그램 <사물과의 대화>는《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을 관람한 후, 나와 다른 존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타자 혹은 모두와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9.12.~11.3, 화-금(휴관일·공휴일 제외)**

시간 | **1회차 10:00 -11:30 2회차 14:00 -15:30**
※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바랍니다.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전시실**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30명 이하 단체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 예정)**

참가비 | **1인당 3,000원**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화 접수(edu@njpartcenter.kr/031-201-8512)**

[총소요시간 | 90분]

세부일정	시간	내용	장소
도입	10분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전시 소개	교육실
전시관람	20분	• 《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 작품 감상	전시실
활동	50분	• 대상 선택하여 관찰하기 • 소통설명서 만들기 • 모둠별로 발표해보기	교육실
마무리	10분	• 소감 공유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설문지	교육실

2)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프로그램 | 피드백: 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

기획전 연계 프로그램 <피드백: 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은 '피드백(feedback)'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전시를 감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반응까지 관람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기획전《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을 관람하고, 기계-인간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고 공유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7.9.12.~11.3, 화-금(휴관일·공휴일 제외)**

시간 | **1회차 10:00 -12:00 2회차 14:00 -16:00**
※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바랍니다.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전시실**

대상 | **중·고등학생, 30명 이하 단체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 예정)**

참가비 | **1인당 3,000원**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화 접수(edu@njpartcenter.kr/031-201-8512)**

[총소요시간 | 120분]

세부일정	시간	내용	장소
도입	10분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전시 소개	세미나실
전시관람	60분	• 기획전 주요 작품 전시 감상	전시실
모둠활동	20분	• 모둠별 자유 감상 및 활동지 체험	전시실
발표 및 마무리	30분	• 모둠별 발표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설문지	세미나실

3)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프로그램 | **피드백 : 비상한 현상, 백남준**

전시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 비상한 현상, 백남준>은 '피드백(feedback)'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전시를 감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반응까지 그 과정으로 여깁니다. 또한 정보를 주거나 필요한 사항 등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의 '피드(feed)'와 백남준의 '백(paik)'이 결합하여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백남준과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소규모 단체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일시 | **2017.9.1.~11.30, 화-금(휴관일·공휴일 제외)**

시간 | **15:00 -17:00**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전시실**

대상 | **중·고등학생, 15명 이하 단체 (소규모 동아리 우대)**

참가비 | **1인당 3,000원**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화 접수(edu@njpartcenter.kr/031-201-8512)**

[총소요시간 | 120분]

세부일정	시간	내용	장소
도입	20분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백남준 및 전시 소개 • 전시 소개	교육실
전시관람	60분	• 주요 작품 전시 집중 감상	전시실
모둠활동	20분	• 모둠별 자유 감상 및 활동지 체험	교육실
마무리	20분	• 공유 및 소감 발표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설문지	교육실

4) 장애학생 단체 대상 프로그램 | **바스락, 들리는 극장**

백남준 작품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를 감상 후, 소리에 집중해보고, 영화나 드라마 속의 폴리 사운드※ 처럼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동화극의 음향효과를 직접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폴리 사운드(Foley Sound): 음향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소리로써 실감나는 영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음향효과를 다양한 소도구와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1930년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사운드 테크니션이었던 잭 폴리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로서, 옷이 스치는 소리,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있다.

일시 | **2017.9.1.~11.30, 화-금(휴관일·공휴일 제외)**

시간 | **10:00 -11:40**
※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바랍니다.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전시실**

대상 | **장애학생, 단체 10~15명**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화 접수(edu@njpartcenter.kr/031-201-8512)**

[총소요시간 | 100분]

세부일정	시간	내용		장소
도입	15분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소리에 대한 생각 나누기		교육실
전시관람	20분	• 상설전《비상한 현상, 백남준》중심작품 감상		전시실
표현활동	55분	이론	•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감상하기 • 폴리 사운드에 대하여 배우기	교육실
		연습	• 일상의 도구로 폴리 사운드 내보기	
		표현	• 동화에 맞추어 소리 내고 녹음하기 • 동화 감상하기	
마무리	10분	• 공유 및 소감 발표 • 활동 마무리		교육실

5) 중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 |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예술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예술의 영역과 예술가의 활동을 직접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고, 백남준이 말한 미래를 사유하는 역할인 예술가가 되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하여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7.9.1.~11.30, 화-금(휴관일·공휴일 제외)**

시간 | **1회차 10:00 -12:00 2회차 14:00 -16:00**
※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바랍니다.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전시실**

대상 | **중학생, 30명 이하 단체**

참가비 | **무료 ※「경기교육나눔사업」지원으로 운영되는 수업입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전화 접수(edu@njpartcenter.kr/031-201-8512)**

[총소요시간 | 120분]

세부일정	시간	내용	장소
도입	20분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동기 유발 – 예술가는 누구인가?	교육실
전시관람	40분	• 예술가들의 작품 감상 - 도슨트와 함께 백남준전 및 기획전 감상	전시실
토의	20분	•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 나의 관심사, 나의 고민,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교육실
창작	20분	• 마인드 맵을 통해 생각 정리하기 • 미래를 상상하고 표현하기	교육실
발표 및 마무리	20분	• 발표 및 활동 마무리	교육실

Ⅳ. 백남준전 개요 및 주요 작품 소개

《비상한 현상, 백남준》 전시 개요

1차 2017.05.02.-2017.05.31.
2차 2017.07.04.-2018.02.04.
백남준아트센터 1층

《비상한 현상, 백남준》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참여'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전시다. 현대예술에서 '참여'는 작품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넘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도와 관계하는 예술로 확대되고 있다. 전시는 이러한 "관계의 미학"에 대한 담론이 개진되기 훨씬 이전부터 음악과 시각예술에 있어서 고전적인 창작과 수용 방식을 전복시키고 예술의 사회적인 참여 방식을 보여줬던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탐구한다.

음악가로서 백남준이 제작한 1960년대 초반의 「움직이는 극장」, 「음악의 신존재론」,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 등 그래픽으로 만든 스코어(악보)는 음악과 그것을 실연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행동하는 관객을 상정한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에 전시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관객이 참여하여 변형하고 만들어나가는 불확정적인 작업으로, 관객의 행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백남준의 첫 개인전은 관객과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전시의 지평을 열게 된다.

전시에 선보인 <총체 피아노>, <랜덤 액세스>등의 음악 작품은 관객의 참여가 전제된 설치이자 음악이었으며, 그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13대의 실험 TV의 작동 방식은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는 예술가의 도전이었다. 이후 제작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로봇 K-456>, <굿모닝 미스터 오웰> 등 새로운 미디어 실험들을 백남준은 거리 음악, 전자 오페라와 같은 음악의 한 형식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음악'들은 백남준이 말했던 새로운 음악의 존재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송의 이미지들에 대한 백남준의 이미지 조작과 왜곡, 텔레비전이라는 기계 장치 자체를 변형시키는 개입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작가와 관객의 개입과 참여, 그리고 미디어의 소통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백남준의 참여는 단순히 관객이 참여하고 상호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과 시각예술의 제도와 체계에 대한 도전이며 예술적 실험 언어였다. 백남준이 수학한 프라이부르크 고등음악원의 볼프강 포르트너 박사는 초기 백남준 음악의 예술적 아이디어와 수행방식에 대해 "비상한 현상" 이라고 표현했다.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매체의 예술을 열었을 뿐 아니라 예술의 소통방식에 전복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백남준. 《비상한 현상, 백남준》은 관객성의 문제를 탐구하고, 제도에 균열을 내어 소통의 방식을 전환시키는 백남준이라는 현대미술사의 '비상한 현상'이 미친 파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비상한 현상, 백남준》 섹션 및 주요 작품 소개

1. 음악의 신존재론

나는 음악의 존재론적 형식을 ~~바꾸기를 희망한다~~ 바꿔야만 한다.
보통의 콘서트에서,
소리가 움직이고, 관객은 앉아있다.
나의 액션 뮤직에서는,
소리와 그 밖의 것들은 움직이고, 관객은 나에게 공격당한다.
– 백남준



백남준 |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 1958-1962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는 4분 33초 동안 아무 것도 연주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작품 <4분 33초>를 통해 속삭이는 말소리, 주변의 소음 등 일상의 소리와 침묵이 음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모든 음이 '음악'이고 모든 행위가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 케이지의 사상은 삶과 예술의 통합을 추구하였던 플럭서스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백남준은 존 케이지를 만나 새로운 예술에 눈을 떴는데 1958년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소리 콜라주와 퍼포먼스를 제작하였다. 릴테이프에 클래식 음악부터 일상의 소음까지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 편집한 후 자신이 조작하고 변형한 장치된 피아노와 함께 공연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독일가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등 클래식음악부터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상자 속의 돌 소리, 수탉 울음, 복권발표와 뉴스와 같은 일상의 소음, 그리고 장치된 피아노의 소리도 함께 녹음되었다. 백남준은 이때의 소리 콜라주를 담은 릴테이프를 액자에 넣어 같은 제목의 작품으로 남겨놓았다.

2.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이 기계를 이용해 우리는
텔레비전 수상기 캔버스를

레오나르도처럼 정확하게
피카소처럼 자유롭게
르느와르처럼 화려하게
몬드리안처럼 심오하게
폴록처럼 격정적으로
재스퍼 존스처럼 서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백-아베의 비디오합성기는 1,001가지 방법으로 즉석 TV를 제작해서 이를 실현하려는
작은 노력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고도의 정확성을 포기하는 대신
고도의 부정확성을 얻었다…
– 백남준

백남준, 아베 슈야 |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 1969/1972

백남준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통로로 여겨졌던 텔레비전을 쌍방향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피아노 건반처럼 영상을 '연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다.
이에 부족한 기술적 지식을 보완해 주는 기술자이자 동료인 아베 슈야와 함께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라는 기계를 제작했다. 완성된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카메라 등 여러 외부 영상 소스를 받아 실시간으로 색과 형태를 변형하는 영상 편집이 가능한 기계다. 이후 1970년 보스턴의 WGBH 방송국을 통해 방영된 <비디오 코뮨>을 시작으로 1977년 뉴욕의 WNET을 통해 방영된 <미디어 셔틀 – 뉴욕/모스크바>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제작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준아트센터는 2011년 아베 슈야와 협력하여 '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베 슈야 컴팩트 버전 신디사이저의 기능을 복원하였다.



3. 실험 TV

어쨌든, 당신이 나의 TV를 보게 된다면, 제발 30분 이상 지켜보기 바란다.

〔…〕

나의 TV에서 기대하지마라: 충격., 표현주의., 낭만주의., 클라이맥스., 놀라움., 기타 등등…
..
나는 이전 작곡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찬사를 받았다.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황소 대가리가 13대의 TV보다 더 큰 센세이션을 낳았다.
사람들이 그 13대 TV 모니터의 각기 다른 "왜곡 현상"(?)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게 되려면 10년이 필요할지 모른다. 전자음악에서 많은 종류의 "소음"(?)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게 되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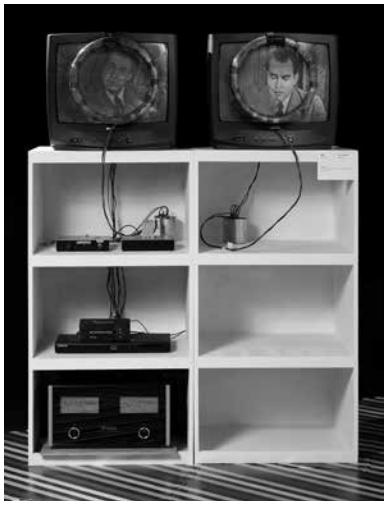
참여 TV는 분명히 (창조자, 시청자, 비평가를 일치시키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지 않은가…. 훌륭하지 않은가….

–백남준



백남준 | 자석 TV | 1965(1969)

1965년 백남준이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백남준 : 사이버네틱스 예술과 음악》에서 선보인 작품 중 하나인 <자석 TV>는 관객들이 자석을 움직여서 모니터의 화면을 변화시키는 작품이다. 강력한 자력은 텔레비전 전자빔에 간섭 현상을 일으켜 전자빔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백남준이 의도했던 대로 관객의 참여로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패턴이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단순한 원리로 화면을 조작하여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아트의 미래를 예언하는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백남준 | 닉슨 TV | 1965(2002)

<닉슨 TV>는 백남준의 초기 실험 텔레비전 중 하나로, 신호발생기를 통해 만들어진 신호를 앰프를 통해 증폭시킨 다음 모니터 위에 설치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 전류는 스위치를 통해 두 개의 모니터에 번갈아 가며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TV브라운관의 전자빔을 왜곡시켜 화면에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희화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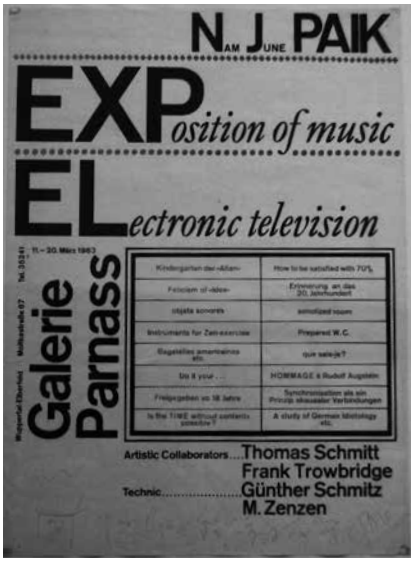
4.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 나는 관객이(혹은 이 경우에는 대중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즐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곡의 연주를 포기했다. 나는 음악을 전시한다. 나는 방에 각종 악기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물을 전시해서 관객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게 한다. 나는 이제 요리사(작곡가)가 아니라 '식료품 가게 주인'일 뿐이다.

1) 이 악기들을 가지고 나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 만지고, 불고, 쓰다듬고, 바라보고, 한발 앞으로 내딛고, 걷고, 달리고, 듣고, 두드리고….
2) 이 악기들은 기존의 어떤 악기보다도 더 청명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연주 홀보다도 더 유동성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음악과 건축 사이에 새로운 범주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백남준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전시 포스터, 1963





백남준 | 랜덤액세스 | 1963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은 음악을 전시실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였다. <총체 피아노>, <음반꼬치>와 같이 음악적 사물들을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 다감각적 경험을 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관람객들은 전자 리더기를 이용해 전시실 한쪽 벽에 어지럽게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긁어가며 녹음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의 오디오라면 한곡의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재생되겠지만 백남준은 전자 리더기가 닿는 대로 '임의 접속' 함으로써 노래의 어느 부분이 재생될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백남준은 "나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나는 음악을 전시한다."고 하였다. 작곡을 전공하고 쇤베르크로 논문을 썼던 백남준은 한 가지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보여주고자 했다.

5. 방송/위성

1984년 새해 첫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모든 종류의 피드백을 만들어냈다. 케이지와 보이스는 친구이지만 한 번도 작업을 함께 해본 적은 없었다. 보이스와 긴즈버그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았다(적극적인 정치활동, 강한 퍼포먼스의 취향, 반핵을 주장하는 자연주의자, 같은 나이, 낭만주의 성향).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아주 드물게 만나는 지구의 스타들과는 달리 천체들은(화성, 토성, 직녀성, 견우성) 정기적으로 만난다. 보잘 것 없는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얻을 수 있는 신비로움을 생각할 때 위대한 천재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쌍방향 작업은 생방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V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전화처럼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기에 나는 쌍방향 TV방송을 원했다.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뉴욕 라이브 버전〉 스틸컷, 1984



백남준 | 굿모닝 미스터 오웰 | 1984 | 47:37

조지 오웰은 1949년 원격 통신과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된 암울한 미래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1984』를 발표하면서, 1984년이 되면 매스 미디어가 인류를 지배하리라는 비관적인 예언을 하였다. 백남준은 이 예언에 대해 "절반만 맞았다"고 반박하며, 예술을 통한 매스 미디어의 긍정적 사용을 보여주기 위한 위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하였다.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뉴욕과 파리를 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연결했다. 이 생방송을 위해 4개국의 방송국이 협력했고 30여 팀, 100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대중예술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 미술, 퍼포먼스, 패션쇼, 코미디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백남준은 이 다채로운 예술들을 합성하여 한 TV 화면 속에서 만나게 하였다. 이 방송은 뉴욕과 파리뿐만 아니라 베를린, 서울 등지에 생중계 되었으며, 약 2천 5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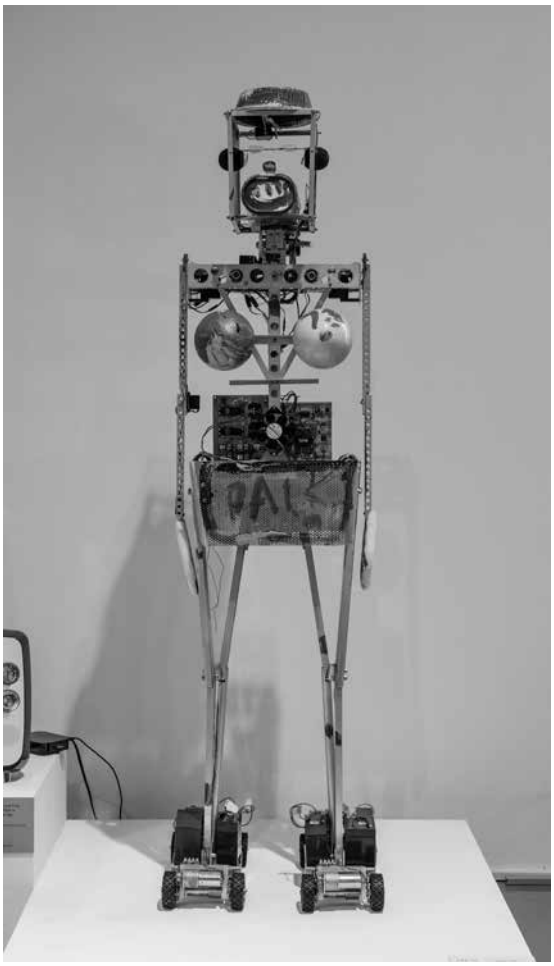
6. 로봇 K-456

나는 로봇이 해프닝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로봇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고 마치 재빠른 샤워 같은 놀라운 일초를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로봇의 발을 차서 앞으로 가도록했다. 그것은 거리-음악 작품이었다. 나는 로봇을 1965년 미국으로 데리고 갔고 제 2회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이 열린 저드슨 홀에서 처음 소개했다. 이후 나는 로봇을 뉴욕의 57가와 파크 애비뉴, 그리고 화창한 일요일의 워싱턴 스퀘어에 가지고 갔다. 모든 사람들이 로봇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어떤 반쯤 흥분한 흑인이 이렇게 외쳤다. "신이 이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워싱턴 스퀘어에 로봇을 데리고 갔을 때 였다. 그것은 매우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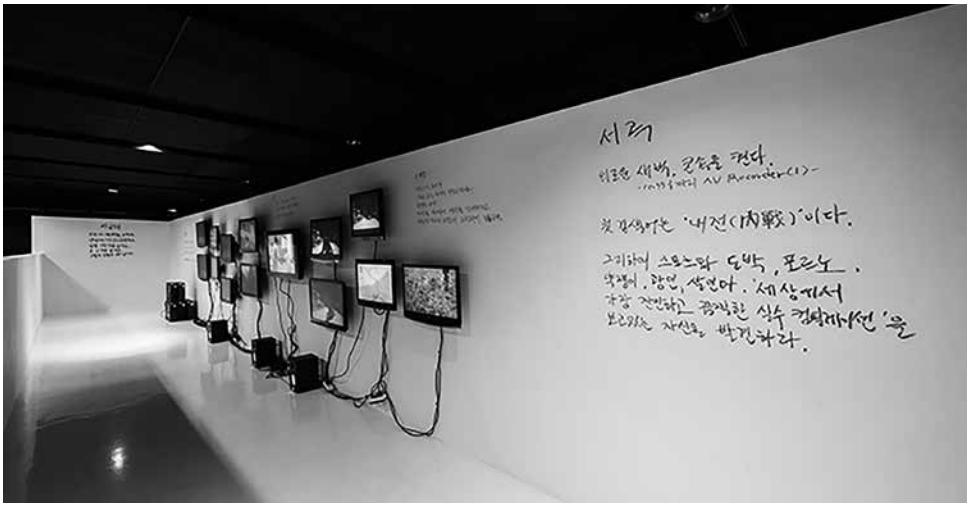
-백남준

백남준 | 로봇 K-456 | 1964/1996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계적인 신체에 대한 열망을 가중시켰다. 백남준의 첫 번째 로봇 작품인<로봇 K-456>은 1964년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일본 엔지니어와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20채널로 원격 조종되는 로봇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의 쾨헬 번호를 따서 이름 붙였다. 이 로봇은 거리를 활보하며 라디오 스피커가 부착된 입으로는 존 F.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마치 배변하듯 콩을 배출하기도 했다. <로봇 K-456>은 백남준과 각종 퍼포먼스에서 함께 공연했고 1982년 뉴욕 휘트니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회고전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퍼포먼스에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기계적 합리성의 허구를 드러내고 인간적 고뇌와 감성을 지녔으며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화된 기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7. 백남준 오마주 #1 - <20개의 방을 위한 심포니>





권용주, 강이다, 장현준 | 존속과 확장 | 2017

《비상한 현상, 백남준》전의 특별 프로젝트로 권용주, 강이다, 장현준 작가의 <존속과 확장>을 선보인다. <존속과 확장>은 백남준의 스코어 <20개의 방을 위한 심포니>(1961)를 동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업이다. 공감각의 설치, 1961년 당대의 사운드 스케이프, 관객의 참여로 지속되고 완성되는 과정의 음악을 담고 있는 <20개의 방을 위한 심포니>에 대한 탐구와 거리 두기를 반복하며 2017년의 스코어를 제작했다. 작가들의 서술은 가상과 현실이 혼재하고 테러와 전쟁, 혼돈을 거듭하는 동시대의 풍경과 소리, 그리고 행위를 담고 있다.

V. 기획 전시 개요 및 주요 작품 소개

기획전《우리의 밝은 미래 - 사이버네틱 환상》전시 개요

2017. 07. 20 – 2017. 11. 05.
백남준아트센터 2층

기획전《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은 기술 환경과 인간 존재에 관계성을 부여하고 미래적 시각을 제시했던 백남준의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과 예술을 탐문하는 전시이다.

'사이버네틱스'는 미국의 수학자 노버트 위너에 의해 탄생한 용어로 1940년대를 기점으로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수용된 이론이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생명체와 기계를 동일하게 보고자 한 이 이론은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라는 현대 기술발전의 경향성을 주도해 왔다.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동시에 그 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인간의 정체성마저 잃을 것이라는 공포도 함께 제공해왔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한 지구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미래가 있을까? 지속가능성과 종말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이 우리 미래의 틀일까? 아니면 다른 선택도 가능할까?

이번 전시는 로봇(Robot), 접합(Interface), 포스트휴먼(Posthuman)으로 구성하여 각 섹션에서 다양한 질문을 생산하도록 기획되었다. '로봇' 섹션에서 선보이는 백남준 <로봇/피플>, <로봇 K-567>, <내 마음 속의 비>, 박경근 <1.6초>, 양쩐쭝 <위장>, 노진아 <진화하는 신, 가이아>, 손종준 <자위적 조치>, 자크 블라스 & 제미마 와이먼 <나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중 :)))))>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으로 인한 갈등과 진동을 잡아내며 로봇과 인간의 협업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음을 고발한다. '접합'에서는 인간 기계 협업 시스템의 균열로 파고들어가 새로운 이음새를 시도한다. 프로토룸 <메타픽셀 피드백>, 언메이크 랩 <이중 도시의 루머>, 황주선 <마음!=마음>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기계의 블랙박스를 파헤치고 다시 인간의 위치를 기계들 사이에 재배치시킨다. 이외에도 기계를 경유해 인간과 인간의 연대를 제시하는 다이애나 밴드 <손에 폰잡고: 광장연습>, 배인숙 <더 썸>과 같은 신작이 전시된다. '포스트휴먼' 섹션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수평적인 관계망 속에서 재설정할 때가 왔음을 보여준다. 김태연 <인공의 섬>은 작가의 DNA를 식물에 넣어서 배양하고 스펠라 페트릭 <비참한 기계>는 홍합의 근육 수축을 인간의 노동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보여준다. 언노운 필드 <희귀한 토기>는 스마트 기술의 원재료 채취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학적 세력으로 군림해 온 실상을 보여준다.

백남준은 「사이버네틱스 예술」 선언(1965년)에서 사이버네이티드된(자동화되어가는) 삶에서 겪는 좌절과 고통은 사이버네이티드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자동화된 삶, 오늘날의 스마트한 삶에서 겪는 고통의 치료법은 결국 스마트한 기술을 경유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진정으로 스마트한 삶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이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서로를 객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 환경의 시스템 깊숙이 접속하여 인간, 기계, 혹은 인간 비인간 사이의 새로운 접합의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우리의 밝은 미래-사이버네틱 환상》의 참여 작가들은 사이버네틱화 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균열을 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술 환경을 탐문해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독려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주도해온 지구의 지질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여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작가]
김태연, 노진아, 다이애나 밴드, !미디엔그룹 비트닉, 박경근, 배인숙, 백남준, 손종준, 스펠라 페트릭, 양쩐쭝, 언노운 필드, 언메이크 랩, 자크 블라스 & 제미마 와이먼, 프로토룸, 황주선

《우리의 밝은 미래 - 사이버네틱 환상》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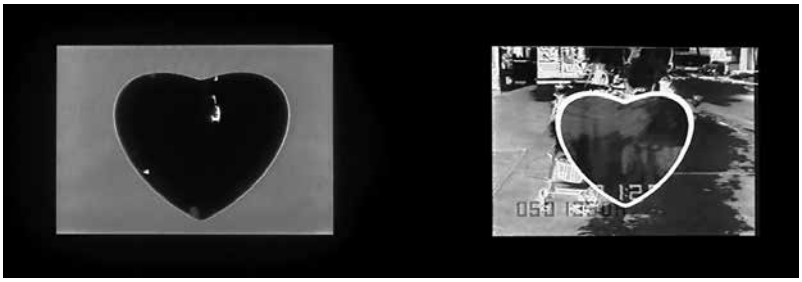
섹션1. 로봇(Robot)

기계는 정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을까?
인간의 마음과 기계의 마음은 다른가?



박경근 | 1.6초 | 2016 | 2채널 비디오 & 오디오 설치, 컬러, 유성 |
1채널 16:56, 2채널 12:26, 오디오 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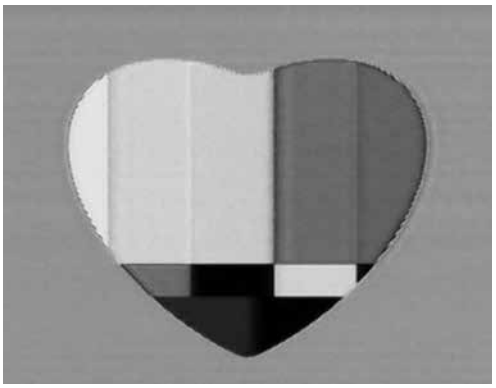
<1.6초>는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로봇의 생산 시간을 1.6초로 단축하는 데서 벌어진 노사 간의 갈등에서 시작한다. 단 1.6초 밖에 되지 않지만 로봇의 빨라진 속도를 인간들이 따라잡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고통이 뒤따른다. 작가는 로봇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므로, 공장에서 로봇의 센서나 모터가 인간의 노동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생명 없는 기계 대 유기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공장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로봇이고 생기 없는 회색빛의 얼굴은 인간이다. 과연 인간은 로봇보다 더 많이 느끼는 창조적인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조직과 사회에 속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가? 박경근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영화와 비디오, 사진과 설치를 넘나들며 개인의 서사와 집단의 서사가 겹쳐지는 지점을 다루어 왔다.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철의 꿈>으로 NETPAC 상을 받았고 <청계천 메들리>, <군대>, <천국의 계단>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백남준 | 로봇/피플 | 연도미상 |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 31:20

하트 모양 하나가 화면을 분할하고 그 안과 밖에서 백남준의 기존 비디오 작품 속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재생된다. <존 케이지에게 바침>, <글로벌 그루브>, <과달카날 레퀴엠>, <손에 손잡고> 등 여러 비디오 속 장면들, 일견 서로 이어지지 않는 영상들이 교차되며 하트의 안과 밖을 율동감 있게 오고 간다. 의도적으로 화면 잡음이 삽입되기도 하고, 재생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기도 하며,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여러 시각 효과가 가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편집을 통해 장면들은 서로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농악대의 상모와 턴테이블의 레코드판, 자연에서 놀고 있는 과달카날 아이들과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본 어린이들, 로봇의 동작과 다양한 인간 군상이 중첩되면서 관람자는 이들 간에 관계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트를 통해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자유롭게 옮겨가는 영상의 움직임은, 인간과 기계,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 고급 예술과 상업 예술 등 서로에게 타자들인 존재들이 한데 뒤섞여 춤추게 한다.

*출처: 김성은, 「노스텔지어는 피드백의 제곱」, 백남준아트센터, 2012, pp.160-161



백남준 | 내 마음 속의 비(스노우) | 연도미상 |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 31:15

화면 한가운데 나타나는 하트 모양 안에서 '비'가 내린다. 무수히 다른 패턴의 흰색 무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움직임으로써 마치 심장이 뛰는 듯 하트에 생명감을 불어넣는다. 백남준은 제목에 '스노우'를 덧붙여 일명 눈꽃송이라고도 불리는 백색소음, 즉 방송국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이나 정규방송이 끝난 후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무질서한 흰 점들의 파동에 관한 작업임을 암시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난수 생성기로 추출한 것 같은 패턴들이 비처럼 내리는 가운데 하트 모양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도 하고, 하트 안과 밖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영상의 중간쯤에서는 백남준의 기존 비디오 실사 화면들이 등장하는데 마치 신호 방해로 왜곡되고 흔들리는 것처럼 합성되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백색소음을 닮은 패턴들과 식별이 어렵게 변형된 이미지들이 그릇 같은 하트 안에서 계속 출렁이는 모습은 사이버네틱스에서 말하는 제어와 불확정성의 변증법적 구도를 표현하는 듯하다. "내 마음에 비가 내리듯 내 컴퓨터에도 비가 내린다."(백남준, 1968)

*출처: 김성은, 「노스텔지어는 피드백의 제곱」, 백남준아트센터(용인: 백남준아트센터, 2012), p.162.



손존중 | 자위적 조치 2011-02 | 2011 | 알루미늄
손존중 | 자위적 조치 | 2016 |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 5:00

현대인은 기술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로부터 소외되고 고통 받는 소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손종준 작가는 자기 방어를 위한 일종의 보철물을 제작하여 사회적 약가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속, 스폰지 등으로 제작된 갑옷이나 투구와 같은 방어 장치들은 인간과 기계가 병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컴퓨터와 스마트 같은 디지털 매체들이 이미 우리의 신체와 결합되어 버린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도 하다. 작가는 기술 환경을 포괄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계와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우리는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자기 폐쇄적이며 소외된 존재가 되어 가는가?

노진아 | 진화하는 신, 가이아 | 2017 | 레진, 나무, 인터렉티브 시스템



노진아는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인공지능 및 기계적 시스템에 관한 작업을 계속해왔다. <진화하는 신, 가이아>는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강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가이아는 대지의 어머니이자, 스스로 조절하며 상호작용하는 지구를 칭하기도 한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자기 조절능력을 가진 지구,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에너지를 서로 보충하는 유기체로 본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이아'는 관객이 다가서면 관객을 쳐다보고, 관객이 귀에 대고 말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기계는 이미 딥러닝과 더불어 자기 조절능력, 자기복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 학습하며 자라는 인공생명체들은 아직은 아기 같은 단계이지만 어느 순간 정말 우리의 지배 여왕-가이아가 될 수도 있다.



양쩐쭝 | 위장 | 2015 | 4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 9:20
|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 32:36

작가는 이 작품을 촬영하기 전에 공장 노동자 50명의 얼굴을 3D프린트로 스캔하여 가면을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의 얼굴 표정이 담긴 가면을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작가는 다중채널 비디오로 노동자의 움직임을 촬영하였다. 그들이 착용한 얼굴 복제물은 노동자의 숨겨진 감정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보인다. 그래서인지 조립라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은 해방된 춤처럼 느리게 펼쳐진다. 그리고 평범한 물건을 제작하는 공장의 분위기는 점차 신비로운 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작가 양쩐쭝은 중국의 항저우 출신의 미디어아티스트로 상하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등의 국제전에서 초청받았으며 뉴욕현대미술관, 영국 이콘갤러리, 일본 후쿠오카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자크 블라스 & 제미마 와이먼 | 나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중 :))))))
2017 | 4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 27:45



<나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중 :))))))>은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에서 2016년에 만든 인공지능 챗봇 테이를 새롭게 부활시켜 패턴 인식 및 기계 학습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제시한다. 19세의 미국 여성으로 디자인된 테이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몇 시간 만에 대량학살, 동성애 공포증, 남성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나치즘 등을 배우면서 결국 하루 만에 해고되었다. 작가에 의해 3D 아바타로 다시 태어난 테이는 환각적인 이미지의 데이터로 구성된 생명체로 인공지능의 사망 후 신체적으로 앓게 된 합병증과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무작위 정보패턴 탐지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만의 대화방을 제안한다. 또한 신경망 내부에 갇혀있는 악몽에 대해,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깊은 창조성과 반테러리스트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작품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크 블라스와 로스앤젤리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미마 와이먼의 공동 작업으로 호주 브리즈번 현대 미술 연구소의 요청으로 제작되었다.

섹션2. 접합(Interface)

우리는 기술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인간과 기계는 이음새 없이 접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계와 소통할 때 어떤 감각을 사용할까?





다이애나 밴드 | 손에 폰 잡고 : 광장연습 | 2017 | 스마트폰, 스피커폰, 나무구조, 변형된 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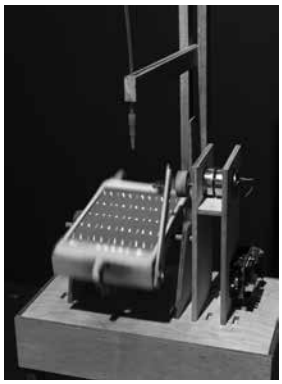
이 작품은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이자 공간 설치 작업이다. 스마트 폰을 소지한 관객은 '스마트 요원'으로 광장에 초대되어 사운드 공동 행동의 가능성을 함께 실험하거나 연습할 수 있다. 스마트 요원이 되고 싶은 관객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작가가 안내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에 접속한다. 이 접속을 통해 스마트 폰은 소리 또는 노이즈를 생성하는 사운드 도구로 전환된다. 다이애나 밴드는 스마트 폰에 대한 보편적인 기능과 사용 경험을 해킹하면서 스마트 폰을 민첩하고 긴밀한 '연결'을 위한 존재로 재정의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광장을 형성하기 위한 연습이 된다. 다이애나밴드는 관계적 미학을 향한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를 실험하는 신원정, 이두호로 구성된 2인조 팀으로 관객의 참여와 관계 형성을 위해 공연성과 상호 작용성을 작업에 적용해왔다.





황주선 | 마음!=마음 | 2017 | 컴퓨터, 뇌파측정기, 전화기, 프로젝터

인간의 마음은 측정될 수 있을까? 작가는 뇌파측정기로 관객의 집중력을 측정해 이를 컴퓨터에 전송함으로써 관객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관객의 집중력 데이터는 영상과 소리를 변경하는 변수가 되고 집중력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전화벨이 울려 집중력의 순위가 고지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관객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작가는 뇌파측정기의 모호한 피드백에 주목하여 인간과 컴퓨터의 미숙한 이음새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면서 데이터로 전송된 뇌파의 패턴이 집중력, 즉 정신의 지표로 정의되는 현대의 과학기술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황주선은 관객의 의사 결정 및 선택 행위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관객을 낯선 상황에 노출시켜 격차를 인식하게 만드는데 작업의 초점을 맞춘다. 격차를 메우려는 관객의 행위는 다시 작품에 반영되어 새로운 격차를 낳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황주선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 작품, 관객의 관계와 역할을 탐구한다.





언메이크 랩 | 이중 도시의 루머 | 2017 | 오디오 모듈, 센서, 나무, 실

<이중 도시의 루머>는 정보기술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퍼져가는 소문을 하나의 접점이자 정보 격투의 장으로 설정하고 진행한 리서치 기반의 설치 작업이다. 언메이크 랩은 두 개의 도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도시인 '이중 도시'에 대한 소문을 리서치한다. 그 도시는 산업사회와 정보기술 사회의 패러다임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한 패러다임이 다른 하나를 조금씩 격퇴하고 있는 중이다. 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루머는 또 다른 목소리나 신호로 재현되고 그 루머는 다시 관객에게 전달된다. 관객은 그 루머를 청취 혹은 도청하며, 두 도시의 역사를 직조하게 된다.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도시의 실체를 은밀히 전하는 과정이자 이중 도시 사이에 접점을 놓아보는 작업이다.



배인숙 | 더 썸 | 2017 | 센서, 컴퓨터, 테이블

<더 썸>은 기계의 작동에 협업 또는 개입하는 촉각적 감각에 대한 것이다. 기계 장치 앞에서 선 네 명의 관람자들은 인간 몸의 부위 중 비교적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 손가락을 사용한다. 손가락은 특정한 조합을 만들어 내고 그 중 의미 있는 손끝 감각만을 추려내 저장한다. 네 명의 40개의 손가락 개체들은 속해 있는 컨트롤 타워의 명령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신체 기억의 간섭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25%의 신체 퍼포먼스 비율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려진 음의 원형을 듣기 위해 완벽한 소음제거 과정에 참여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기계와 인간의 아이러니한 합집합이라는 한순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배인숙은 익숙한 장치와 일상을 이루는 시스템의 원리를 간소화하여 예술적,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계적 인간과 인간적 기계와의 접점을 발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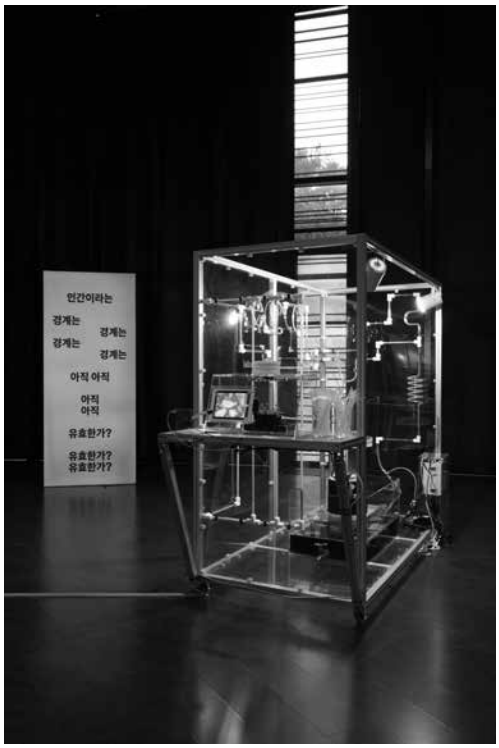
프로토룸 | 메타픽셀 피드백 | 2017 | 카메라 렌즈 모듈, 전자기판, 라즈베리 파이, 스피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초기, 인간과 디지털의 접점에서 도드라지게 보였던 픽셀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인지하기 힘들어졌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선명하게 재현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기계와의 이음새 없는 상호작용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하지만 픽셀은 사라진 것일까? 이 작품은 컴퓨터와 상호적인 언어놀이가 가능한 카메라를 제작, 설치해서 소통의 과정을 만들고 관객이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매체의 원자적 존재인 픽셀을 가시화해보는 작업이다. 작가는 고해상도를 지향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수면 아래 숨은 픽셀을 직접, 그러나 낯설게 감각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어 전체의 부분이자 개별로서의 '메타픽셀'이라는 새로운 생명성을 부여한다.

프로토룸은 테크놀로지 매체 기반의 키트로 작업을 하는 뉴미디어 콜렉티브로 전시, 워크숍을 통해 <Tech x Kit x Critic> 연작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후니다 킴과 김승범이 활동하고 있다.

섹션3. 포스트 휴먼(Post human)

인간이라는 경계는 아직 유효한가?
인간 다음에는 지구에 무엇이 살까?



김태연 | 인공의 섬 | 2016 | 유리판, 알루미늄 파이프, 아기장대 식물, 엽록체, 모터

김태연은 생물 복제, 원자와 분자의 상호작용 등 바이오 과학과 창발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인공의 섬>은 작가 본인의 DNA가 들어간 식물 애기장대를 배양하고 여기에 관객들이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형 유리구조물로 이뤄진 작품이다. 여기서 초록색 액체는 식물과 인간의 구조적 공통점에서 가져온 블러드 즉 혈액의 순환 과정을 시각화해준다. 이 작품을 통해 태초에서 식물과 인간이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관객들의 날숨으로 유리관을 통과하는 초록색 액체의 순환을 통해 식물과 인간의 융합 및 상호작용이 시각화된다. 작가는 생명을 물질이나 정보로 간주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펠라 페트릭 | 비참한 기계 | 2015 | 홍합, 램프, 기계장치,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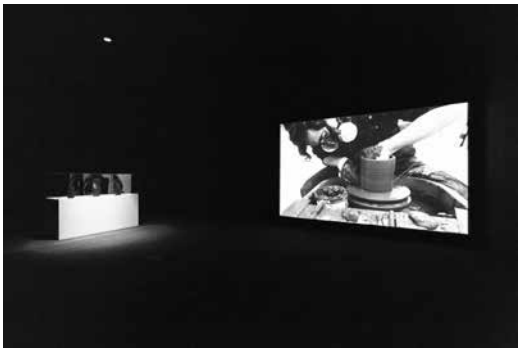
스펠라 페트릭은 슬로베니아 출신의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과학자로 인류학, 심리학, 철학과 연관된 질문을 생산해내는 예술적 실험을 수행한다. <비참한 기계>에서 살아있는 홍합은 화병 만드는 기계에 무자비하게 내쳐진다. 이 불쌍한 생물은 갑자기 충격을 받아 움직이게 되고, 이 운동은 화병에 디자인을 그려 넣는 노동이 된다. 홍합의 삶과 죽음의 사이클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노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바이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살아있는 시스템'에게 노골적인 착취를 강요하는 것이 기술적, 환경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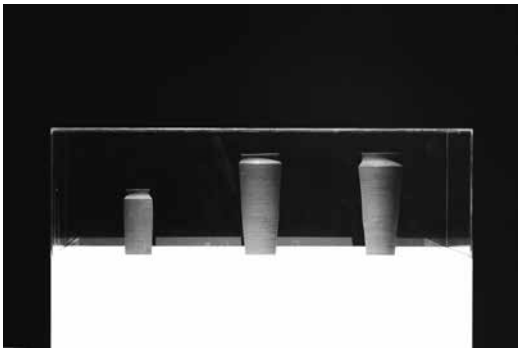
!미디엔그룹비트닉 | 무작위 다크넷 구매자-봇 컬렉션 | 2014-2016 | 3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유성 | 9:40



<무작위 다크넷 구매자>는 자동화된 온라인 쇼핑봇으로 비트코인에서 매주 100달러의 예산을 제공받아 일주일에 한번 딥웹 쇼핑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로봇이 무작위로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하면 전시실으로 물건이 배달되어 전시실에 그 물건들이 쌓이고 거래된 상품들의 풍경이 연출되었다. 무작위로 추출된 소비주의는 딥 웹 시장에 등록된 수천 개의 제품 중 다양한 제품을 보장받게 된다. 2015년 스위스 전시에서 로봇이 구매한 마약류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로봇이나 소프트웨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연 투옥시킬 수 있는지 혹은 코드가 설계상 부도덕하거나 범죄자일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촉발되었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품인 <무작위 다크넷 구매자-봇 컬렉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크넷 구매자'가 주문한 25가지 항목을 보여준다.

!미디엔그룹 비트닉은 취리히와 런던에 거주하는 카르멘 비스코프과 도마고이 스몰리오, 런던의 영화 제작자이자 연구원인 애드난 하치와 기자 다니엘 라이저 등이 포함된 미디어 그룹이다.





언노운 필드 | 희귀한 토기 | 2015 | 1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3개의 토기 | 6:45

언노운 필드는 산업 생태계와 위태로운 자연환경을 탐험하고 대안적 지구를 추구하는 노마딕 디자인 리서치 스튜디오다. <희귀한 토기> 프로젝트는 최첨단 전자 기술에 널리 사용되는 희토류 원소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디오는 희토류가 수출입되는 컨테이너 선박과 항구 및 공장으로부터 내몽고 호수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다. 도예가 케빈 캘러건(Kevin Callaghan)은 희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이 쌓인 내몽고 호수의 진흙을 사용하여 세 개의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도자기는 스마트 폰, 경량 노트북, 스마트 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으로 만들어졌으며, 명나라 화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도자기들은 글로벌한 물질적 욕망의 결과인 동시에, 방사능 수치와 독성이 높아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은 영국의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의 의뢰로 건축협회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으며 토비 스미스와 공동으로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였고 도자는 런던 조각 워크숍, 애니메이션은 크리스티나 바비아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 | 조민화, 황지아

디자인 | 진디자인

발행일 | 2017.08.24.

발행처 | 백남준아트센터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백남준로 10
031-201-8500

www.njpartcenter.kr